

큰 빛은 예교회 가정에 배지

2024. 7. 24.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시선”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후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브릿지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6장 8절

다 같이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시 타락한 세대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아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창 6:9)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 편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를 입혀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 6:8). 이 두 가지 요인 가운데 더 근원적인 것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을 죄의 오염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는 자

본문의 히브리어 '노아 마차 헨 베에네 예호와'(נֹחַ מָצָא חֵן בְּעֵינֵי יְהוָה)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입니다. 즉 노아는 은혜를 찾기 위해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은혜가 여호와의 눈과 관련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인간이 숨어서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인간의 시선만을 따라 사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은 항상 자기를 향해 있고, 쾌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고,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창 6:11)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며,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식을 가진 삶'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현실을 넘어 먼 안목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는 '역사 의식'이 생겨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사회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긍휼을 간구하는 자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חֵן)입니다. 이는 '은혜를 베풀다'(창 33:11), '긍휼히 여기다'(시 4:1), '간구하다'(신 3:23) 등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난'(חָנַן)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찾는다'는 말에는 '긍휼을 간구한다'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악의 세력과 투쟁하여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받을 때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악이 범람하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러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은 노아와 같이 의인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인이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인간적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눔

다같이

- 1 “노아 마차 헨 베에네 예호와” 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 2 우리가 사는 베이지역에서 여호와의 눈이 무엇을 보시고 계신 것 같나요?
- 3 노아는 악한 세대에서 변질되지 않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긍휼이 필요한가요?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 1 악한 세상에서 변질 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 2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 3 새로운 성전에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이 채워지도록
- 4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지경이 넓혀지도록
(홈리스, 컴패션, 선교지, 개척교회)
- 5 예배와 교육이 조화롭게 균형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마무리 기도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